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4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점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월 16일 월요일 (음 12월 19일) 제172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 시로 침체 빠진 소상공 · 중기 지원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AI 정책자금 20억원 공급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업체 대상 일반자금
300억으로 지원규모 확대

닭 · 오리 소비촉진 운동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급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전북도가 지원을 추진한다.

최근 AI 발생에 따른 가금산물 소비 부진 등으로 해당 농가 못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자금 지원과 함께 소비촉진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영업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AI 정책자금 20억원과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특례보증 50억원을 공급기로 했다.

AI 정책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2.0% 금리에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고 대출과정에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보증도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특례보증은 업체당 3,000만원까지 1.0%(이차보전 2%) 금리에 1년거치 4년상환 조건이다.

자금 지원에 대해 신청 및 문의는 각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와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또한 육가공업체 등 AI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으로 해소를 위해 일반자금은 1.2분기를 통합해 300억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설 명절을 대비해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등이다.

일반자금의 경우 업체당 최고 3억원에 2년거치 2년분할상환(이차보전 2%), 긴급자금은 업체당 최고 2억원

에 2년거치 일시상환(이차보전 2%) 조건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상환 유예도 1회에 한해 1년 이내에서 가능하다. 신청 및 문의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AI로 인한 관련 품목 소비 불안심리 해소와 수급 정성화를 위해 소비촉진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설 명절을 맞이해 은누리 상품권 판매 목표를 60억원으로 설정하고 개인할인구매액 확대(월 50만원), 기관·단체 구입 활용 권장과 함께 전통 시장 이용 분위기 조성 및 홍보에 집중기로 했다.

또한 도내 기관·단체 동참 유도, 할인판매, 캠페인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3일 개최된 전북도 주관 '민생경제원탁회의'에 참여한 40여개 기관은 닭 · 오리 식단 편성 및 자체 시식회 개최 등 소비촉진 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표시하고 적극 참여를 다짐했다.

아울러, 도는 같은 날 '소상공인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갖고 관계자들로 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향후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전북도는 교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국비를 확보해 조기 지급기로 했다.

설 명절 이전까지 살처분 보상금 추정액 50% 범위 내에서 선지급을 실시하고 생계안정자금이 국비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입식 지연 등으로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살처분농가의 가족 재입식시 입식비용에 대해 용자 지원(금리 1.8%, 2년 거치 3년 상환)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 완주군 인사 홈페이지(www.jjmaeil.com) 참조



지난 14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제10차 전북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가한 시민들의 시민자유발언을 듣고 있다.

“소신항거한 스님의 숭고한 뜻 헛되지 말자”

▶ 제10차 전북도민 총궐기

故 정원스님 추모와 병행 시민원탁회의 결과 발표

지난 14일 오후 5시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울려 가장 추운날씨라는 '최강 한파' 속에 열린 제10차 전북도민 총궐기 현장에는 도민 300여 명이 모여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촛불을 들어 올렸다.

이날 열린 전북도민 총궐기에서는 지난 12일 열린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현 정권에 맞선 시민들의 목소리를 알리고, 지난 7일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외치며 분신을 시도했다가 9일에 숨진 고(故) 정원스님의 추모의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정원스님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모 영상 상영, 공연, 시민원탁회의 결과 발표, 시민 자유발언, 고 박종철 열사 30주기를 맞아 준비된 박 열사 관련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정원스님 추모 자리가 마련되자 총궐기 무대에 오른 이세우 목사는 추도사에서 “제주 강정마을과 경기도 대추리마을 집회 현장을 비롯해 위안부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에 항거하는 집회 자리에 참석할 때마다 만발치에서 스님을 본 기억이 떠오른다”며 “스님 중에 스님이자, 진정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종교인이었던 만큼, 생전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 정신을 배워달라던 하는 후회감을 들어 올렸다.”

이어 “이것이 진정한 나라인가”라고 분노를 표하며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든 현 정권, “그 정권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여기며 나라와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 소신항거한 스님의 뜻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에 열린 전북도민 총궐기에서 공연을 펼쳤던 무용가 한영애 씨의 아들 왕준형씨가 이날 집회 현장에 참석해 뮤지컬 ‘데미제라블’에서 먼저간 혁명동지에게 대한 살아 남은자의 고백을 담은 노래 ‘빈의자 빈식탁’을 불렀다. 왕씨는 “세월호 참사

로 인해 하늘로 먼저 떠난 친구들에게 자신들만 살아서 미안하다고 고백했던 (단원고) 학생들의 인터뷰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자유발언대에 오른 임하라(17)군은 추운 날씨 함께한 도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앞서 12일 열렸던 시민원탁회의 분위기와 그곳에서 나섰던 시민들의 사회개혁안들을 전달하기도 했다.

임군은 “12일 시민원탁회의에서 학생 인권을 대변해 의견을 제시했고,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참석해 여러 의견을 내는 것을 보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사회 변화 의지가 얼마나 뚜렷한 지 알 수 있었다”며 “그 날에 이어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날이 추워 여느 때와 달리 적은 인원이 참석했지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자리를 메우고 있는 도민들의 모습에 감동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1일 오후 5시 전주시 관동로 사거리에서 열리게 될 제11차 전북도민 총궐기 대회는 방송인 김제동과 함께하는 ‘만민공동회 행사’와 병행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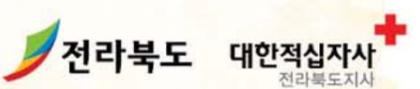
지방투자촉진사업 도·산업부 간담회 개최

산업부 지방투자촉진사업 지자체 순회 간담회가 도내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3일 도청에서 개최됐다. 지방투자촉진사업은 산업부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의 투자에 대해 국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14개 기업 285억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218억원을 국비로 확보해 지원한 바 있다.

산업부는 전북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사업 담당자들과의 제도개선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열악한 동부권지역 등 성장잠재지역의 지역집중유치사업 확대 등을 통해 해당 지역 투자기업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마,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집중모금기간 **2016.12.1~2017.1.31**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